

갤러리 시몬에서 노상균 전에 대한 보도를 의뢰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시제목 : 노상균 개인전 "I Love You "

전시기간 : 2005. 10. 7 (금) ~ 2005. 11. 4 (금)

전시장소 : 갤러리 시몬 (강남구 신사동 630-21 T. 549-3031)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대표,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 등 국내외에서 많은 개인전과 기획전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상균이 갤러리 시몬에서 10월 7일부터 "I Love You" 라는 제목으로 14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가 더 폭넓은 창작생활을 위해 뉴욕으로 이주한 후 갖는 전시라는 점과 갤러리현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그의 새로운 국내 전속화랑인 강남의 갤러리 시몬에서 갖는 첫 개인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이 전시에서 작가는, 속물적 도발적 즉물적 등으로 표현되는 플라스틱 씨퀀이라는 소재를 평면과 입체등에 사용하여 키치적 대중적 성격을 명상적이거나 사유적 물체, 공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진지하고 고상한 예술세계로 끌어들이는 특성을 지닌 작품들 외에, 전시 타이틀이 된 "I Love You"라는 두 개의 움직이는 커다란 여성용 화장품 compact를 새롭게 제작해 선보인다. 미끈한 비행접시처럼 납작하고 동그란 두 개의 compact는 일정한 주기로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반복하며 마치 서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거울 속의 자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울 밖의 자기"의 태도는 본능적이다.

단순한 외양에서 그 자신의 내면까지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속에서 언제나 불안정해 보인다. 화장은 본래의 피부 위에 인위적 피막을 씌워 변화된 새로운 피부색과 질을 만들어내는 위장술이며 그러한 바꿈의 목적은 성, 직업, 나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여성의 화장의 목표는 거의가 다 아름다워지고자 함에 있다. 그 덧씌워진 아름다움은 새로움 밑 본래의 것의 변화를 감추는 변화거나, 변화를 위한 변화이다.

거울과 파우더로 구성된 화장품인 Compact는 자기확인과 변화, 그리고 그 변화된 자기확인을 충족시킨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을 방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가능하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도 그리고 주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compact 작품의 "I Love You"란 제목은 타자에게 하는 통속적인 말이 아닌, compact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거울 밖의 자기"가 "거울 속의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Endless Love" 라는 제목의 회화에 대한 열정과 미련을 담은 '붓' 작업들 외에, "마법사의 손수건", 알루미늄 판 위에 제작된 크고작은 "One End" 시리즈들, 시럽도록 차가운 파랑색의 부처머리와 모든 것을 다 흡수 해 낼듯한 검은색의 "부처의 장갑" 등을 전시하는 이번 개인전은 11월 4일 까지 열린다.